

곡성 와사비, 지역 신소득 작목 '발돋움'

광주농협 고향기부제 물품 선정 부산 도시농업 박람회서 완판 가공상품 개발 농가소득 기대

‘곡성와사비’가 광주농협 고향사랑 기부제 물품에 선정되는 등 토란, 멜론, 딸기 등 곡성 주요 특화작목 외 신소득 작목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와사비는 적정 생육온도가 8~18℃인 저온성 작물로써 풍부한 비타민 C는 물론 매운맛을 내고 식중독을 억제하는 살균효과를 가진 Isothiocyanate(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을 가지고 있다.

‘곡성와사비’는 2023년 전남농업기술원의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통해 육성 중인 신소득 지역 특화작목이다.

와사비 육묘 및 실증 재배 연구, 현장 적용 시범, 유통상품화·출하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에는 ‘곡성와사비’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였다.

곡성군은 그동안 와사비 판로 확대를 위해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아이스크림페스티벌’, ‘서울 농부의 시장’ 등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해 곡성와사비를 홍보한 바 있다.

지난 12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20회 부산 도시농업 박람회’에서 와사비장아찌와 백세미를 활용한 짬밥, 와사비 차 등을 선보였으며, 와사비 장아찌 200세트는 조기에 완판되는 성과를 올렸다.

육과농협과 협업을 통해 광주농협 7개 지점과 출하 계약을 완료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 중이며, 최근에는 북광



곡성 와사비가 신소득 작목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주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상품’에 선정되어 특수채소의 경쟁력 있는 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다양한 행사 참석 및 판로확보를 통해 곡성와사비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된 것 같아 보람

을 느꼈으며 향후 재배 기술뿐 아니라 유통·판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농가 보급 확대, 가공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가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대나무 축제 성공 기원 담양군 ‘떡깨비’ 이벤트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제공

담양군은 오는 5월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제23회 담양 대나무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5월 한 달간 공공배달앱 ‘떡깨비’ 특별 쿠폰 발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만2000원 이상 주문 시 3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되는 이번 행사는 떡깨비 신규 가입 유도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마련했다.

기존 가입자는 3000원의 할인쿠폰을 1인, 1일, 1회 기간 중 매일 사용 가능하며, 신규 가입자는 5000원의 신규 가입 쿠폰과 중복하여 총 8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떡깨비는 모바일 담양사랑상품권(chak)으로 결제할 수 있어 상품권 10% 구매 할인 혜택과 함께 사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공배달앱 ‘떡깨비’ 중개수수료는 1.5%로, 민간배달앱에서 발생하는 입점비,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업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떡깨비 가맹점 신청은 떡깨비 사장님 사이트(<https://boss.mukkebi.com>)와 떡깨비고객센터(1644-7817)를 통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23회 담양 대나무 축제를 앞두고 진행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은 매출을 올리고, 소비자는 배달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영광군, 올 첫 모내기

영광군이 지난 19일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한 군남면 반안리 정권옥(49) 농가 모내기 현장에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 작업을 도왔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첫 모내기는 작년에 비해 하루 늦은 것이며, 이번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진행되어 6월 중순까지 약 9500ha의 경지에서 모내기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생종 벼 조기 재배는 4월 하순에 이앙해 8월 하순에서 9월 초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오는 태풍 등 기상재해를 피할 수 있어 도복, 수발아, 수량 감소, 미질 저하 등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회피할 수 있고, 추석 전 햅쌀 시장의 선점으로 가격경쟁력 향상, 농번기철 노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올해도 풍년 농사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의 위상을 계속해서 드높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운 기자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교육생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모집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교육생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은 귀농에 필요한 지식과 영농기초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초보 귀농인에게 호응이 높다.

귀농 기초 소양교육, 작목별 재배 체험, 선도농가 방문 등을 제공해 영농기초를 다질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6일까지로, 5월 8일 개강해 월 2회씩 총 10회, 회당 4시간 수업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장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선배 귀농인과 만남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귀농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



영광군이 지난 19일 올해 첫 모내기를 시행한 농가를 찾아 모내기 작업 지원을 펼쳤다.

영광군 제공

곡성군, 출생 축하 기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출생 후 1년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곡성군은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소망 등이 기재된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아기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택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곡성군은 이 외에도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

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효과로 곡성군 출생아 수는 2022년 44명에서 2023년 62명으로 40%가량 증가한 바 있다.

정문수 민원실장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아기 탄생의 기쁜 마음을 추억으로 간직하기 바란다”며 “색다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전남농기원, 저탄소 벼 무써레질 재배 연시회

농업현장 적용 혁신기술 선택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농촌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농업기술원 벼 시험포장에서 농업인,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벼 무써레질 재배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저탄소 벼 재배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혁신적 기술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기술로는 벼 무써레질 재배, 비산저감 AI 노즐 드론 방제 기술과 자율주행 이앙 등 최신

농업 기술이 소개됐다. 지름강(췌) 등 7개 농기계 회사들이 저탄소 농업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균평기, 드론, 자율주행 이앙기 등 시연을 선보였다.

국립식량과학원과 전남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연구 중인 무써레질 재배 기술은 논에서 써레질 대신 마른 로터리와 균평 작업 후 물을 대고 이앙하는 재배 방법으로 분담 작업시간을 기존 10~12일에서 5~6일로 단축하고 써레질 횡수 또한 기존 2~3회에서 1~2회로 단축이 가능해 노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농업분야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발생량 또한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공기흡입형 AI 노즐 부착 드론은 약제 살포시 약제 용액에 공기를 주입해 작물 표면 부착률을 4배 향상시켜, 벼 병해충 방제 효과를 40% 높이고 약제 비산을 30% 감소시키는 기술이다.

자율주행 이앙기는 최첨단 GPS와 AI 기술을 접목해 모내기 작업의 정밀도를 높이고 기존 작업과 비교해 노동력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박용철 전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앞장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건재 기자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화순군, 6월말까지

화순군은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 2개 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월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469건이고, 체납액은 약 2억5300만원이며 이 중 2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1억8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은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고질 체납으로 변질해 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 지속해서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체납자는 감소하지 않았고,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사정독려하는 현장 징수 선형 활동을 전개했다.

화순군은 이후에도 미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수(단수) 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군민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자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일체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